

전북, 새만금 국정과제 채택 총력전

대선공약연계 새만금 정상화 국정기획위 제안·정치권 공조 새만금 TF·샌드박스 ‘투 트랙’

지난 5월 16일 군산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은 새만금 정상화 필요성과 SOC 조기완성을 직접 언급했다.

그러며 속도감 있는 개발과 규제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 미래 성장거점으로서 새만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9일 ‘속도’와 ‘규제완화’라는 전략 키워드 중심으로 새만금 개발 전환의 ‘시급성·필요성’을 강조하며,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체계적 대응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번 전략은 대통령 공약인 새만금 SOC 조기 완성과 함께 첨단전략산업 육성, 신산업 테스트베드 구축 등과 연계돼있다. 전북자치도는 국정기획위원회에 단계적 과제 제안과 함께 정치권 공조를 통해 국정과제 채택을 위한 행정책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를 위해 국정과제화의 핵심 실행 방안으로 투 트랙 전략을 제시했다.

첫째는 ‘새만금 전담 TF’를 정부 직속으로 구성해 부처 간 분산된 정책과 개발 추진체계를 통합하고, 규제완화·제도개선·전략수립을 일괄 추진하는 컨트롤타워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둘째는 개발, 규제, 투자 기능이 통합된 ‘글로벌 메가샌드박스’ 도입이다. 글

로벌 메가샌드박스는 기반시설 조기 구축을 위한 일괄 예타면제, 규제특례 확대, 테스트베드형 산업도시 구축, 민간 투자유치 지원 등을 아우르는 통합 제도로, 새만금을 단순 개발지를 넘어 세계적인 산업 실험도시이자 민간투자 테스트베드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다.

특히, 의료용 헴프 산업 클러스터, 글로벌 줄기세포 치료 실증단지, 이차전지 R&D 콤플렉스,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등 미래 첨단산업 중심의 실증 사업이 포함돼 있으며, 이는 기존 규제

체계를 넘어서는 유연한 산업 실험공간을 구축하려는 시도다.

도는 또 투자샌드박스를 통해 외국인 고용 규제완화, 협상형 투자 인센티브 제도 도입, 국민연금 등 공적자금 대체 투자 활성화 등을 추진하며, ‘투자-입지-생산-확장’으로 이어지는 기업유치 선순환 구조를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도는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정책 일관성과 실행력을 기반으로 한 새만금 개발의 실질적 완성 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뒀다.

새만금 관련 주요 사업이 새 정부 3대 비전(회복·성장·행복) 중 ‘성장’ 분야의 국가균형발전 과제에 명확히 부합하는 만큼, 국정과제 최종 반영을 위해 행정력과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미정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새만금은 이제 선언적 비전을 넘어, 실행 가능한 정책으로 완성돼야 할 시점”이라며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드시 반영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도교육청과 정읍시는 서거석 전북자치도교육감과 이학수 정읍시장 및 관계자와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18일 정읍 고부면 동학울림센터에서 ‘고부초·중 통합운영학교 설립 및 고부관아 복원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정읍시>

전북교육청·정읍시, 정읍 고부관아 복원 힘 실었다

동학발상지 고부관아 복원 고부초·중 통합학교 설립 협약 역사자원 복원·교육환경 개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정읍시가 고부면 지역의 미래 교육여건을 조성하고,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와 지역 정체성 제고를 위한 고부관아 복원에 뜻을 모았다.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과 이학수 정읍시장은 18일 정읍 고부면 동학울림센터에서 ‘고부초·중 통합운영

학교 설립 및 고부관아 복원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양 기관 관계자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의회 임승식·염영선 의원, 정읍시의회 박일 시의장, 이복형·고경운 시의원, 지역주민 등이 참석해 협약 취지를 공유하고, 안정적 사업 추진에 힘을 실었다.

특히 이 협약은 농촌 소규모학교의 열악한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인 고부관아 복원을 함께 실현한다는 점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의 ‘통 큰 결단’으로 평가받고 있

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공동 추진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며, 교육청은 주민과 학교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체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할 계획이다.

고부관아는 1894년 동학농민혁명의 서막이 오른 곳으로 일제강점기 훼손된 이후 현재는 고부초등학교가 자리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역 주민들의 염원이었던 고부관아 복원을 현실로 이끌어낸 것은

지역의 정체성과 역사적 가치를 되살리고, 교육협력의 결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초·중 통합운영학교는 고부중학교 부지에 신설, 낙후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적정규모학교로 육성할 계획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번 협약은 고부중학교와 고부초등학교의 낙후 시설을 개선해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동학농민혁명 발원지로서 지역의 소중한 역사 자원을 복원하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정읍=김정인 기자

당정, 민생지원금 보편지원 확정

1~2차 합쳐 35조원 규모 재원 세입정정·국채발행

정부와 여당은 18일 전국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추경은 1·2차 합쳐 35조원 규모로 하기로 했다. 앞선 1차 추경에 13조8천억원이 편성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2차 추경 규모는 21조 2천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대통령실, 정부와 비공개 당정 정책협의회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 규모가 35조원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해왔고, 1·2차 추경을 합하면 그 규모에 근접해 있다”며 추경 규모를 밝혔다.

이어 “추경안에는 민생회복지원금과 민생회복 소비 쿠폰사업이 반영돼 있다”면서 “당은 모든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이 보편 지원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고, 정부도 이런 입장을 그대로 받아 보편지원으로 설계했다”고 덧붙였다.

허영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지원 방식에 대해 “보편을 기본으로 한 맞춤형 지원”이라면서 “어려운 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 형식”이라고 설명했다.

또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 방향도 잡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반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기재부는 전 국민에게 민생지원을 하되 상위 10%에게는 15만원, 대다수 국민에게 25만원, 저소득층에게는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차등 민생지원안을 제시했었다.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예산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당초 민주당은 2조원 규모 편성을 요구했으나 1차 추경에서는 4000억원 규모만 반영된바 있다. 코로나19, 비상계엄 등으로 어려운 자영업자 채무 부담 경감도 추진키로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코로나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자영업 소상공인 채무 부담이 대단히 커서 이 채무에 대한 적극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채무조정을 위한 예산도 크게 편성돼 있다”면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일정 수준 채무를 정부가 매입, 소각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번 정부는 세수문제를 인정하고 세입경정을 결정해 맞춤형 지원”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김영목기자

양파값 곤두박질에도 수출길 농가 ‘울며 겨자먹기’ 첫 선적

도매가 35% 이상 하락 수매 대신 수출로 가격방어

전북농협(본부장 이정환)은 지난 17일 전주원예농협 산지유통센터에서 ‘25년산 양파 대만 첫 수출 선적식’을 가졌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6월 양념채소 관측에 따르면, 올해 중만생종 양파 생산량은 약 109만톤으로 전년(105만5천톤)보다 3.2%, 평년(106만5천톤)대비 2.2% 증가했다.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4% 줄었지만 6월 중만생종 수확기를 앞두고 기상 여건이 좋아 생육이 원활해 최적의 환경이 조성되면서 생산단수가 전년 보다 7.5% 증가해 생산량이 늘었다.

13일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양파 평균 도매가격은 1kg당 661원으로 전년(1,016원) 대비 35%, 평년(972원) 대비 32% 낮은 수준이다.

전북농협과 전주원예농협은 2025년 산 양파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하락이 예상됨에 따라 국내산 햃양파 96톤을 대만에 처음으로 수출했다.

이번 수출로 선제적 수급조절 및 양파 가격을 안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환 본부장은 “최근 양파 도매시장 반입물량이 증가하면서 양파 가격이 전년 대비 매우 낮은 수준이다”며 “도내 농가 생산 물량을 해외시장에 적극 수출해 양파 수급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김관영 지사, 美 동부 정치 중심부서 외교전

UN본부방문
올림픽비전설명
뉴저지주의회해상통력논의

전북의 지속가능한 미래전략이 미국 동부 '정치, 경제, 외교' 현장을 통해 세계에 공개됐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간 뉴욕과 뉴저지 일대에서 UN 본부, 경제기관, 문화단체 등과 고위급 면담을 갖고 전주올림픽 유치 비전 및 전북의 신산업 전략을 설명하며 국제 협력 외연을 넓혔다.

이번 방문은 김관영 도지사를 단장으로 전북자치도 대표단의 미국 출장 일정(6월 15일~21일)의 일환으로, 전북자치도는 지난 2000년 자매결연을 맺은 뉴저지주를 비롯해 동부권 핵심 도시들과의 외교 네트워크 확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대표단은 16일 유엔 본부를 방문해 나비드 하니프 UN 경제사회이사회(UNDESA) 사무차장보, 장옥진 경제사

회국장과 면담했다. 김 지사는 "전주를 립픽은 지역 주도·친환경·포용성을 핵심 가치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긴밀히 연계된다"고 설명하고, 전북자치도는 대한민국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임을 소개하며 UN과 함께 SDGs의 지역화를 공동 추진하고자 함을 제안했다.

하니프 UN 사무차장보는 "도정 정책 방향을 지속가능한 개발로 지향하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를 높게 평가한다"며 올해 10월 일본에서 열리는 The international Mayors forum에 전북특별자치도 도시들을 초청하는 한편, 내년 4월 뉴욕에서 개최예정인 2026 ECOSOC partnership Forum과 관련해 협업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문화외교 활동도 활발히 진행했다. 뉴욕한국문화원에서는 김전수 원장과 만나 전통 공예품인 천사초롱과 매듭 킴 등을 전달하며 전북 문화의 정체성을 소개했다. 향후 문화교류와 공동 사업 확대도 협의했다.



전북의 지속가능한 미래전략이 미국 동부 '정치, 경제, 외교' 현장을 통해 세계에 공개됐다. <사진=전북자치도>

뉴저지주와의 실질적 교류 재개를 위한 노력도 이어졌다.

특히 금융·제약·바이오 등 실효성 있는 교류를 추진하는데 의견을 같이 했으며 김지사는 양지역간 교류를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의회간 협력에 대해서도 검토를 제안하기도 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는 "이

더불어민주당, 대선평가위 구성

내년 지방선거 등 고려
김병기 원내대표 인선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비상설 특별위원회로 '대선평가위원회'(가칭)를 구성기로 했다.

박상혁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대선을 성공적으로 치렀으나 앞으로 여러 선거가 남았기 때문에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지난 의원총회에서 있었다"며 이같이 전했다.

민주당의 대선 평가는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평가내용은 투표율과 이재명 대표 지지율 등을 중심으로 평가해, 내년 지방선거 때 공직후보자 평가와 함께 공직후보 추천에 반영할 것으로 예측된다.

박 수석부대표는 평가위 구성과 관련,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에게 위임했다"며 김 대행이 결정할 것임을 밝혔다.

이밖에 박 수석부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추가 당직 인선을 통해 자신이 조승래 전 수석대변인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수석대변인직을 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김영목 기자

임종명 도의원, 자원순환 기본 조례 개정조례안 가결

폐기물 발생 억제 근거 마련
생산·소비 환경 조성 기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종명 의원(남원2)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제419회 정례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임종명 의원은 "기존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 및 처분에 초점을 두고 있는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돼 생산·소비·유통 등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



임종명 도의원

촉진을 도모하도록 관련 조례를 전부개정해서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 사회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순환이용률 등의 추진실적을 담은 순환경제 목표의 설정 및 지원 △지역 기반의 순환경제 구축 △순환경제촉진위원회의 설치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전북도 '유헤 국유재산 자활사업장 활용사업' 추진

전주·익산 등 5개소 선정
전북형 자활 모델 구축

전북특별자치도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전북광역자활센터,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전북지부와 함께 '유헤 국유재산 자활사업장 활용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자활기업과 자활사업단에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운영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전북형 자활정책 일환이다.

도는 전국 최초로 국유재산을 대부받아 리모델링을 거쳐 취약계층 일자리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방식이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12월 관련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올해 전주·익산·임실 등 5개 지역에 위치한 유헤 국유건물을 자활사업장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이 중 전주 금암1파출소 건물은 '청년 자립도전사업단'이 입주해 1층에는 자활생산물 판매점, 2층에는 디지털 개발과 케이터링 공간을 조성한다.

익산 영등지안센터는 '다온팜사업단'이 입주해 호두과자 판매와 도시락 제조를 진행하며, 임실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은 문구·팬시 용품을 판매하는 '알파 임실점(늘해랑)'으로 활용된다.

이어 군산 흥남지안센터는 '카페보네

군산점'으로, 남원 동충치안센터는 '배이커리카페사업단'이 입주할 예정이다.

황철호 전북자치도 복지여성보건의료관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공간 활용을 넘어, 공동체 회복의 공간으로 바꾸는 매우 상징적인 전환"이라며 "자활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물리적 공간 제공에 전북형 자활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소방, 전국 최초 '지능형 출동시스템' 본격 운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
호남 협업 남부시장서 가동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전통신장 점포명을 입력하기만 하면 최적 경로를 실시간 안내받아 화재현장까지 정확히 도달할 수 있는 '지능형 출동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시범 구축하고, 전주 남부시장에서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기존에는 전통신장 내 화재 발생 시, 협소하고 복잡한 골목길 구조로 인해 소방차가 점포까지 정확히 도달하는 데 시간이 지체되곤 했다.

특히 신고가 특정점포로 접수되면, 내비게이션 검색이 불가능하거나 상호가 시스템에 미등록돼 초기 출동지가 남부

시장 공영주차장으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호남지역본부와 업무협약(MOU)을 맺어, '안전한 전통신장 만들기 시범사업'을 기획했고, 이후 실무 TF를 구성해 총 5차례의 실무회의를 통해 적용 대상과 역할 분담, 기술적 사항 등을 협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전주 남부시장을 대상으로 전통신장 내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지능형 출동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이 추진됐고, 총 4천만 원 규모 사업비는 전액 공단이 지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전주 남부시장 전역을 실측해 점포, 출입구, 통행로, 소방시설 등의 위치 정보를 정밀 수



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장 구조를 그대로 반영한 전자지도와 GIS(지리정보시스템) DB를 구축했다.

이오숙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은 "전통신장 지능형 출동시스템은 기술과

현장을 연결한 전국 최초의 시도로, 이를 도내 전통신장 전역으로 확대해 시민이 체감하는 현장 중심 안전체계를 완성하겠다"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도, 6월 한달 간 가족돌봄청년 집중발굴

전북특별자치도가 가족 간병과 생계를 책임지며 학업과 일상생활 병행이 어려운 '가족돌봄청년' 위한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전북자치도는 6월을 '가족돌봄청년 집중발굴기간'으로 정하고, 시군 및 지역 복지기관, 학교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을 적극 발굴하고 있다.

가족돌봄청년은 주로 10대 초반부터 30대 중반의 청년의로서 생계를 책임지는 상황에 놓여 학업 중단이나 진로설계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초기 상담과 밀착

사례관리를 통해 청년의 심리 상태를 진단하고, 정서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과 함께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를 지원한다.

전북자치도는 지금까지 약 300명의 가족돌봄청년에게 초기 상담부터 정서회복 프로그램, 자기돌봄비 지급 등 실질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다.

황철호 전북자치도 복지여성보건의료관은 "학업과 가족돌봄으로 이중고를 겪는 청년이 소외되지 않고 건강하게 사회에 나갈 수 있도록, 도에서는 든든한 동반자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교통사고 예방수칙



운전중
휴대전화 금지



전좌석
안전띠 사용



졸음 운전
금지



과속 운전
금지



안전거리
확보

본격 장마철 농작물 침수피해 ‘초비상’

전북농기원,재해대책수립 전달 배수로 정비·살균제 살포 당부 논콩 무름병 방제도 병행해야

본격적인 장맛철을 맞아 농작물의 침수피해 예방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논콩 등이 물에 잠기면 뿌리가 호흡을 못하는 혐기성 상태로써 고사하기 때문에 철저한 배수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20일부터 전국적인으로 본격적인 장마기로 돌입하며, 특히 20~21일 동안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농경지 및 시설하우스 침수피해와 논콩 등 습해 피해가 우려되어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원장 최준열)은 20일부터 잦은 호우로 농작물

및 시설하우스 침수피해가 우려돼 18일 시군 재해대응 팀장 및 담당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재해대책 및 중점추진 사항 등을 전달했고, 13~14일 집중호우로 인한 논콩 침수지역에 대한 사후관리 상황도 점검했다. 논콩의 경우 배수구와 배수로 내 잡초와 이물질 등을 사전에 제거해 침수되지 않도록 배수를 유도해야 한다. 비가 그친 중간에는 무름병 등 세균성 약제 살포도 중요한 방제작업이다. 시설하우스는 외부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우스 주변에 물길을 만들어 유입을 차단하고, 돌풍이 불 때는 비닐하우스를 끈으로 튼튼히 고정하고, 골재와 비닐을 밀착시켜 쓰러지는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한다. 또한 과수원은 장마 전 품을 미리 베어 빗물이 잘 빠지도록 준비하고, 탄저



전북농업기술원은 18일 시군 재해대응팀과 담당자 대상 장마철 재해대책을 전달하고 논콩 침수지역에 대한 사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사진=전북농기원>

병 예방을 위해 장마 시작 전에 보호살균제를 살포하고, 비가 그친 뒤에 치료 효과가 있는 약제를 살포해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윤대순 기술보급과장은 “본격 장마 시작으로 농

작물과 시설하우스 침수피해 등 신속 대응을 위해 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고, 시군농업기술센터와 현장 대응을 협업하여 사전·사후관리를 위해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재근 기자

전북, 언리얼 기반 게임 개발 인재 키운다

콘텐츠융합진흥원 실무 교육 기초·고급·청소년 과정 운영

(재)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이하 진흥원, 원장 김성규)은 게임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2025 게임콘텐츠 전문인력양성사업’을 지난 16일부터 오는 7월 4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한다. 사업은 7월 중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선다. 이번 교육은 실습 중심의 언리얼(Unreal) 엔진 기반 커리큘럼으로 구성,

게임 개발 실무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 올해는 교육생의 수준에 맞춘 △기초반(25시간) △고급반(60시간)으로 분반 운영되며, 각 과정은 정원 12명 내외로 소규모로 진행된다. 특히 고급반 과정에는 언리얼 엔진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포트폴리오 제작 실습이 포함돼 있어 취업을 준비하는 수강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교육은 전액 무료 제공되며, 도내 대학생, 취업준비생, 예비 창작자 등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또 진흥원은 한국게임학과고등학교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청소년 대상 언리얼 엔진 특화 과정도 새롭게 개설한다. 이는 미래 게임 인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지역 내 게임교육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다. 진흥원 김성규 원장은 “이번 교육은 전북의 청년들에게 게임 산업 진입을 위한 든든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교육과 체계적인 인재 육성을 통해 전북 게임 생태계 전반의 성장 동력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전북중기청, 탄소 배출량 산정 디지털 MRV 도입

내년 시행 예정 CBAM 대비 솔루션 보급 지원 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전세희 이하 전북중기청)에 따르면, 중기부는 2025년 디지털 기반 자동화 MRV 솔루션 보급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오늘부터 오는 7월 24일까지 6일동안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MRV란 탄소 배출량 측정·보고·검증을 의미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제품 탄소 발자국, 전 과정 온실가스 배출량 평가 등 국제 탄소 규제 대응을 위해 중소기업이 갖춰야 할 핵심역량이다. 디지털 기반 자동화 MRV 솔루션 보급 사업은 '26년도에 본격 시행 예정인 CBAM에 대비해 전담조직과 전문인력 보유 상황이 열악한 중소기업도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탄소 규제에 스스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을 통해 △전기 등 에너지 사용량을 기반으로 탄소 배출량을 산정해주는 SW △공정·설비별 에너지 사용량 계측기, 데이터통신 장비 등 HW △배출량 산정값의 신뢰성 담보를 위한 전문기관의 검증을 종합 제공한다. EU로 CBAM 대상 품목을 작·간접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자동화 MRV 솔루션을 제공하는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

성해 신청할 수 있다. 2025년 디지털 기반 자동화 MRV 보급 사업 모집공고의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ESG 통합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18일 정부는 2025년 EU CBAM 대응 제2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개최해 중소기업 실무자들에게 중소기업용 CBAM 대응 설명서, 디지털 기반 자동화 MRV 솔루션 보급 사업 등을 소개했다. /김영태 기자

호남지방통계청 경제통합 통계조사 광주·전남·전북·제주 5만개 사업체



대면·비대면 조사 병행 진행 제조·서비스업 등 전방위 조사

호남지방통계청(청장 정구현)은 이달 17일부터 7월 21일까지 광주·전남·전북·제주지역의 약 5만개 사업체(기업체)를 대상으로 '2025년 경제통계 통합조사'를 실시한다. 경제통계 통합조사는 제조업, 서비스업 등 우리나라 산업과 경제의 구조변화와 경영활동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시행하는 조사로, 4종(광업·제조업조사, 서비스업조사, 운수업조사, 기업활동조사)의 경제통계조사를 사업체의 응답부담 경감을 위해 동시에 진행한다.

이번 조사 대상 사업체는 조사원이 사업체를 직접 방문하는 대면 조사는 물론, 응답자 편의를 위한 다양한 비대면 조사 중에서 선호하는 방식을 선택해 참여할 수 있다. 조사 결과는 우리나라 각 산업 분야의 정책 수립·평가, 기업과 국민의 각종 의사결정 및 학계의 다양한 연구활동에 필요한 기초통계로 활용되며, 금년 12월에 잠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정구현 호남지방통계청장은 금년 경제통계 통합조사 실시와 관련해 “급변하는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맞게 정부가 각종 정책을 올바르게 수립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가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환경청, 통합환경관리 민관 머리 맞대고 해법 찾는다

OCI 군산공장에서 운영협의회 54개 사업장 대상 순회교육

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청장 김호은)은 오는 20일 오후 1시 30분 OCI 군산공장(군산시 외항로 82)에서 2025년 상반기 '전북지역 통합환경관리 민·관 운영협의회'를 개최한다. '전북지역 통합환경관리 민·관 운영협의회'는 통합환경관리 사업장간 멘토링 그룹을 구성해 통합환경관리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사업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등 민·관의 소통을 위해 구성된 논의기구다. 통합환경관리제도가 도입된 2020년부터 매년 참여사업장을 확대해 개최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는 사업장의 자율관리 역량 향상을 위해 통합환경관리에 관한 연간 계획과 사업장 운영 시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조치사항을 안내하고, 주요 위반 사례 중심의 '찾아가는 순회교육'도 함께 이뤄진다. 특히 이번 순회교육은 전년도 회의에서 사업장이 건의한 '위반사례 위주 교육 요청' 건에 대한 후속조치로 군산, 익산지역 통합사업장 5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하반기에도 확대 운영하는 등 사업장의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또 운영협의회 내에 업종과 지역별로 멘토링 그룹으로 묶어 환경관리 현장의 애로·건의사항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업종별 환경관리 여건에 적합한 사업장 지원방안을 공유해 해결 방안도 민·관이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환경청 담당자와 멘토사업장 간의 소통체계를 구축해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한다. 사후관리 교육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며 신규 사업장에 대해서는 1:1 맞춤형 컨설팅 진행을 통해 통합허가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할 예정이다. 김호은 전북지방환경청장은 “통합환경관리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업 현장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에 더욱 귀 기울이고, 전북지역의 기업 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통합환경관리 사업장에서도 지역 환경개선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김영태 기자



농진청, ‘요네병’ 1시간 내 신속 판별 기술 개발

무증상 가축 조기 식별 진단·방역 효율성 크게 향상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반추동물에서 발생하는 만성 전염병 ‘요네병(Paratuberculosis)’을 1시간 내 신속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요네병은 송아지, 염소 등 어린 가축부터 감염돼 시간이 지나면서 설사, 체중감소, 산유량 저하 등을 유발하며, 결국 폐사에 이르게 하는 제2종 가축전염병이다. 국내 첫 발생(1967년) 이후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특히 감염 초기에는 외형상 증상이 거의 없어 조기 진단이 매우 어렵고 수년간 병원체를 배출하는 ‘준임상형 개체’가 많아 조용히 확산하는 추세다. 현재 요네병 진단에는 △균 배양법 △혈청학적 검사법 △항원 검사법인 피시알(PCR) 등을 활용한다. 균 배양법은 정확도는 높지만, 결과 나오기까지 6주 이상 오랜 기간이 걸린다. 혈액 속 항체를 검사하는 혈청학적 검사법은 간편하고 대규모 농장 검사에 적합하지만, 감염 초기에는 항체가 형성되지 않아 초기 감염 개체를 식별하는 데 한계가

있다. 피시알(PCR) 검사는 분변에서 요네균 유전자를 직접 검출하는 방식으로 민감도는 높지만, 결과 도출까지 약 3시간이 소요되며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다. 이번에 개발한 루프매개등온증폭법(LAMP)은 요네균 특이 유전자(IS1311)를 표적으로 한다. 기존 피시알(PCR) 방식보다 민감도가 10배 이상 향상돼 0.1피코그램(pg) 수준의 극미량 병원체도 검출할 수 있다. 또 진단도 3시간에서 1시간 이내로 가능하며, 고가의 장비 없이 항온기만으로 진단할 수 있다. 특히 두 가지 발색시약(HNB, Calcein)을 조합해 음성과 양성 간 색상 차이로 전문가가 아니어도 맨눈으로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요네균 특이 유전자(IS1311)를 표적으로 하는 루프매개등온증폭법(LAMP) 관련 특허 출원을 완료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질병방역과 감식진 과장은 “축산농가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현장형 진단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축산 현장의 질병 부담을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중소도시 활성화 ‘도시·치유농업’에서 찾는다

농진청 국제 학술토론회 개최 치유농업 지역소멸대응 모색

세계 여러 나라는 소도시 활성화에 도시·치유농업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과 (사)한국도시농업연구회는 19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전북특별자치도 완주)에서 ‘중소도시 활성화를 위한 도시·치유농업 활용 방안’을 주제로 국제 학술토론회(심포지엄)를 연다. 일본, 중국, 베트남, 이탈리아 등 해외 도시·치유농업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지역 소멸 위기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도시농업과 치유농업의 역할을 집중 조명한다. 이 자리에서 농촌진흥청은 각 나라의 실천 사례와 정책 방향을 공유하며, 국내 산·학·관·연 관계자들과 협력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1부에서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정

순진 연구관이 ‘국내 중소도시 소멸 대응을 위한 도시·치유농업의 역할’ △일본 동경대 마코토 요코하리 교수가 ‘일본 축소 도시에서의 도시농업 활용 모델’ △중국 장쑤성농업기술원의 린 탕 박사가 ‘중국 도시·치유농업의 농촌 활성화 적용 사례’에 대해 발표한다. 또 △베트남 국립 호찌민시 대학교 응응 티 프영 란 교수가 ‘인구 감소 예방을 위한 치유농업 활용 방안’ △이탈리아 피사대 프란체스코 디 아코보 교수가 ‘사회적 농업 기반의 지역 활성화 모델(모형)’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간다. 2부에서는 △대전팔 임현구 박사 △농림축산식품부 이성원 사무관 △농촌진흥청 전영삼 지도관 △전북연구원 김동영 박사를 비롯한 도시농업, 치유농업 관련 시민단체와 종사자들이 중소도시 소멸 문제 대응을 위한 도시·치유농업 활용 전략을 종합적으로 논의한다. /김영태 기자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18일 전주 남부시장 안전전통시장 시범사업 완료보고회에서 5백만원 상당의 자율소방대 현장지원물품을 전달했다. <사진=전북은행>

전북은행, 자율소방대에 현장 활동물품 전달

‘안전한 전통시장 만들기’ 참석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은 18일 전주 남부시장에서 열린 안전한 전통시장 만들기 시범사업 완료보고회에 참석해 자율소방대 현장 활동 지원 위한 5백만 원 상당 활동모자와 안전경광봉 등 물품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박성효 이사장, 전북소방본부 이오숙 본부장, 전주시청 정승원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전북상인연합회 복대만 회장, 전북은행 서두원 부행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전통시장 안전관리 강

화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전북은행은 이번 지원을 통해 도내 전통시장 내 자율소방대의 신속한 대응 역량을 높이고, 안전관리 체계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은행 서두원 부행장은 “지역 전통시장을 위해 헌신하는 자율소방대에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과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제8회 ‘전주독서대전’ 시민 참여로 풍성해진다

7월 23일까지 전 국민 대상

전주올해의책 독후감 등 공모

책의 도시 전주에서 펼쳐지는 대한민국 대표 책문화 축제인 ‘제8회 전주독서대전’이 시민들의 참여로 더욱 풍성하게 준비된다.

전주시는 책과 함께하는 도시 문화 조성과 시민들의 일상 속 독서 문화 확산을 위해 오는 7월 23일까지 ‘제8회 전주독서대전 시민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책을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전주 올해의 책을 함께 나누며 소통과 공감의 기회를 제공하고 독서를 통한 창의적 표현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공모전은 △전주 올해의 책 독후감과 △전주 올해의 책 독후감 △전주독

서대전 인스타그램 등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전주 올해의 책 독후감’ 공모전은 전국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전주 올해의 책 어린이 그림 부문 선정 도서인 ‘세상’(강경수 저, 창비) 또는 어린이 글 부문 선정 도서인 ‘베프 떼어 내기 프로젝트’(김근혜 글·김다정 그림, 개암나무) 중 한 권을 선택해 읽은 후 창의적인 시각으로 책의 내용을 재해석하는 등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그림으로 표현한 독후화를 제출하면 된다.

독후화 부문의 경우 방문 및 우편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신청자는 전주독서대전 누리집(www.jjbook.kr)에서 참가신청을 완료한 후, 참가 신청서(출력본)와 출품작(독후화)을 전주시 도서관산업과(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306, 전주시립도서관 꽃심 3층)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를 하면 된다.

또한 ‘전주 올해의 책 독후감’ 공모전은 초등부(4~6학년)와 중·고등부, 일반부의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독후감 분야의 경우 연령대에 구분 없이 전주 올해의 책 선정 도서 4권 중 한 권을 읽고 자신만의 생각과 감동을 글로 풀어낸 독후감을 전주독서대전 누리집(www.jjbook.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2025 전주 올해의 책’은 △세상(강경수 저, 창비) △베프 떼어 내기 프로젝트(김근혜 글·김다정 그림, 개암나무) △페이스(이희영 저, 현대문학) △어떤 어른(김소영 저, 사계절) 등 총 4권이다.

이와 함께 최근 SNS 콘텐츠로 주목받고 있는 웹툰 형식의 작품을 공모하는 ‘전주독서대전 인스타그램’ 공모전도 진행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전주독서대전을 주제로 인스타그램 형식에 맞춘 원고(4~8컷 이내)를 전주독서대전 누리집(www.jjbook.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각 부문별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수

상작을 선정한 뒤, 오는 8월 5일 전주독서대전 누리집을 통해 수상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전주시장과 더불어 소정의 시상금이 수여되며, 수상작은 ‘제8회 전주독서대전’ 기간 동안 전시 및 홍보자료로 활용된다.

시민공모전의 수상작이 수록된 문집 ‘내게 가장 소중한 책 이야기’도 발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올해 ‘제8회 전주독서대전’은 오는 9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전주한벽문화관 일원에서 ‘넘기는 순간’을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최현창 전주시 도서관본부장은 “이번 시민공모전은 독서 문화 확산은 물론,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독서축제의 장이 될 것”이라며 “책과 예술, 시민의 이야기가 어우러지는 제8회 전주독서대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전교조 전북지부, 천막 농성 1년…갈등은 여전

단체협약 유지 촉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지난해 6월 17일부터 전북교육청 앞에서 단체협약 유지를 촉구하며 천막 농성을 벌인 지 1년을 맞이했지만,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앞서 전교조 전북지부는 전북교육청이 678개 조항 중 168개 쟁점 조항을 삭제·수정하겠다는 요구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전북교육 퇴행 멈춤의 날’ 집회 등을 진행하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전북교육청과 전교조 전북지부는 9개월간의 갈등 끝에 첫 실무교섭을 시작했지만 단체 협약을 두고 서로의 입장차가 극명해 교섭이 중단되는 등 난항이 지속되고 있다.

전교조 전북지부 관계자는 “전북교육청과 격주로 많으면 20개 조항을 협상하고 있는데 이 속도라면 1년이 더 지나도 해결되기 어렵다”며 “교육청 입장에서 단체협약에 이의를 게 없어 속도를 내지 않고 있고,

우리 노조는 기존 단협을 지키는 게 목표이다 방어만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체는 “협상의 경우에도 장관 정도만 나와 협상에 한정적인 경우가 많다”며 “교육청은 협상에 책임있게 임해 교사들의 교권과 일상을 지켜온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전북교육청은 교원의 근무환경 개선 등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사항의 날 집회 등을 진행하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다만 교육정책 및 행정기관의 책임과 권한을 제한하는 조항 등은 보다 효율적인 교육 행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북교육청 민주시민과 관계자는 “현재 교섭은 전체 항목 중에서 40% 정도 진행된 상황”이라며 “시대적 변화와 도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원조조와의 협상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도, 글로벌대학 본지정 성공 추진 총력 지원

전주대·호원대

도·시군·대학 협력회의 개최

전북자치도는 18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전주대·호원대의 글로벌대학 본지정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도·시군·대학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김종훈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전주대·호원대와 글로벌 추진방향

과 관련된 도청 실국, 전주시·군산시, 전주대와 호원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대학 추진방향과 협조사항을 공유하고 본지정 대응을 위한 실질적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논의사항은 △글로벌대학 본지정 실행계획서의 집필 및 지자체 지원계획 수립 △전북도 주요 정책과 대학 혁신방향 간 연계 △키카오엔터·CJ

ENM 등과의 산학협력 추진 △전주·군산 등 시군과의 재정지원 및 연계사업 발굴 방안 등이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전주대·호원대가 추진 중인 K-FOOD, K-Contents, K-Wellness 분야 중심의 ‘K-Life STARdium’ 캠퍼스는 지역의 문화산업과 관광, 식품, 뷰티산업과 맞닿아 있는 핵심 전략”이라며, “도는 실국 간 긴밀

한 협업과 시군의 적극적인 동참을 통해 전북형 글로벌대학 모델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는 6월~8월 동안 본지정 평가 대응을 위한 실행계획서 작성, 산학연 협약 체결, 시군과의 예산 협의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김영태 기자

전북교육청, 2025년 직업교육박람회

도내 직업계고 소개·진로 탐색

전북 직업교육의 비전과 교육과정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축제의 장이 열린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8~19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전시관에서 ‘2025년 전북직업교육박람회’를 개최한다.

도내 중학교 학생 및 학부모에게 직업계고의 학과별 교육과정을 소개하고 다양한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이 박람회에는 이틀간 4,1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박람회는 △학교 홍보관과 동아리 체험관 △개막식 △직업계고 설명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학교 홍보관과 동아리 체험관에서는

도내 31개 직업계고의 입학 정보와 교육활동을 직접 살펴볼 수 있다.

학교별, 계열별 진학 상담을 통해 박람회장을 찾은 중학생들에게 학과 선택과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진로 상담 버스, VR 체험버스, 과학 체험 버스 등 다양한 기관에서 운영하는 참여형 프로그램도 마련돼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서 교육감은 “직업계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학생들에게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직업교육박람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며 “이번 박람회가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주비빔밥 탄생 비화 댄스뮤지컬 ‘조선셰프 한상궁’

9월 19일까지 전주대사습청

전주의 전통상권인 전주 남부시장(현 전주 남부시장)을 배경으로 전주비빔밥의 탄생 비화를 소재로한 댄스 뮤지컬 공연이 오는 20일 막을 올린다.

전주시는 오는 20일부터 오는 9월 19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전주대사습청 야외무대에서 ‘조선셰프 한상궁·전주비빔밥 그 맛의 비밀’ 공연을 선보인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가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과 러파이브(주)가 주관하는 전통예술지원 브랜드 상설공연으로, 지난해 선보인 ‘조선셰프 한상궁 전주비빔밥, 그 맛의 여정’에 이어 ‘그 맛의 비밀’을 풀어나가는 스토리를 담아내고



새롭게 구성한 음악과 판소리, 댄스가 더해진 것이 특징이다.

예매는 온라인(인터파크 티켓)과 현장 예매 모두 가능하며, 관람료는 2만 원이다.

/정재근 기자

국립전주박물관, 성인 대상 박물관 인문학 강좌

‘시간을 함께한, 기록’ 주제

국립전주박물관(관장 박경도)은 성인 문화 강좌 박물관 인문학 ‘시간을 함께한, 기록’을 개설하고 수강생을 모집한다.

‘박물관 인문학’은 국립전주박물관에서 매년 진행하고 있는 인문학 강좌 프로그램이다.

올해 주제는 ‘기록문화’로 과거에서 현재까지 우리 삶 속에 함께하고 있는 기록문화를 발견하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강연과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강의는 △기록의 방법, 활자(이재정 前 국립전주박물관 학예연구관, 6월 25일) △기록을 담은, 그림(장진아 국립전주박물관 학예연구실장, 7월 30일) △화륜선

타고 온 포크, 사진으로 전주를 기록하다(조병중 우석대 교양대학 교수, 8월 27일) △완판본의 도시 전주, 기록과 사람을 잇다(안준영 완판본문화관 관장, 9월 24일) △기록의 역사, 전북의 금석문(전주문화원 원장, 10월 29일)으로 구성되며, 각 분야 전문가들이 전북지역 인문학에 대한 심도 깊은 강의로 총 5회 진행할 예정이다.

6월과 7월 강좌는 대중 강연으로 예약 없이 현장 참여가 가능하며, 8월, 9월, 10월의 체험강좌는 6월과 7월 수강자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선착순 모집한다.

프로그램 참가비는 무료이며 자세한 내용은 국립전주박물관 누리집(https://jeonju.museu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태 기자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수칙

▶ **과속금지!** 자전거 권장속도인 **시속 20km** 지키기

▶ **주행 중 휴대전화, 이어폰 사용하지 않기**

▶ **음주 후에는 절대로 자전거 운행 하지 않기**

▶ **야간 운행 시 전조등,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같은 발광장치 착용하기**

▶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므로 운전자는 각종 의무 지키기**



군산 선유도해수욕장

7월 9일 개장...워터슬라이드 등

유리알처럼 고운 백사장이 약 10리에 걸쳐 펼쳐진 '명사십리' 선유도해수욕장이 오는 7월 9일부터 8월 17일까지 40일간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올해도 시는 비치파라솔 100조, 구명조끼 700벌을 마련했으며, 실내 샤워장 등도 무료로 운영할 계획이다.

어린이 놀이시설인 미끄럼틀과 수영장인 워터슬라이드도 설치하기로 해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피서객들의 큰 호응이 기대된다. 이외에도 광장 그늘막 3개소, 음약분수도 마련된다.

최근 새로운 대안 치료로 인기인 '해양치유 프로그램'도 선보인다. 이 프로그램은 스트레스, 만성질환, 신체적 피로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바다, 해풍, 모래, 해조류 등 해양자원으로 치유하는 활동이다.

시는 천혜의 지역 해양환경을 활용해 요가·모래찜질·해변 명상 등 자연 속 치유 활동을 제공해 단순 관광을 넘어선 '임과 회복' 중심의 체류형 관광콘텐츠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군산시, 어린이와 함께하는 갑오징어 종자 방류 체험행사

군산시가 주최하고, 한국해양소년단 전북연맹이 지원한 <어린이와 함께하는 갑오징어 '갑토리' 종자 방류> 체험행사가 18일 비응항 일원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갑오징어 산란·식육 조성 사업의 하나인 동시에, 민·관 공동 참여를 통한 공동체 의식 강화 및 소통행정의 계기로 추진됐다.

이날 행사에는 △관내 지역 유치원생 50여 명 △한국해양소년단 전북연맹 △한국수산자원공단 서해본부 △행사 관련 관계자 등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어린이들과 참가자들은 군산 대표 수산물 갑오징어 종자 2,000여 마리를 자연으로 되돌려보내는 소중한 체험을 함께 나눴다.

/군산=지송길 기자

"지자체 공문 사칭 주의!"

정읍시, 소상공인 대상 사기 경고

공무원을 사칭해 허위 공문을 보내 물품 납품을 요구하는 사기 수법이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정읍시가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최근 전국 자치단체를 사칭한 사기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실제 지자체에서 발생한 피해 건수는 지난해 1건에서 올해 상반기 13건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사기 수법은 주로 공무원을 가장해 소상공인이나 업체에 접근한 뒤 물품 구입을 빌미로 견적서를 요청하고, 이 과정에서 확보한 업체 정보를 바탕으로 지자체 명의의 허위 공문을 작성해 납품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시는 시민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의심스러운 요청을 받을 경우 해당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부서 연락처를 반드시 확인하고, 공식 절차를 통해 진위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세계유산 등재 10주년 기념 행사

EBS 방송, K포럼·캠페인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익산시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백제문화의 가치를 재조명한다.

익산시는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10주년을 맞아 (재)백제세계유산센터와 공주시, 부여군 등 8개 기관과 함께 다양한 기념 행사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백제역사유적지구는 2015년 독일 본에서 열린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대한민국의 12번째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유적지구는 백제 후기(475~660년)의 문화를 대표하는 연속유산으로 △익산 2개소(왕궁리유적, 미륵사지) △공주 2개소(공산성, 무령왕릉과 왕릉원) △부여 4개소(관북리유적과 부소산성, 정림사지, 왕릉원, 나성)로 구성돼 있다.

시는 등재 10주년을 기념해 8개 기관과 6월부터 7월까지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우선, EBS PLUS2 '문화유산 코리아'를 통해 7월 27일까지 매주 주말 오전 10시에 백제역사유적지구를 주제로 한 13부작이 방송된다.

7월 6일 오후 3시 45분에는 EBS 1TV에서 백제역사유적지구 1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도 방영될 예정이다.

7월 2일에는 서울드래곤시티에서 '2025 K포럼'이 열린다. 이번 포럼에서 'K헤리티지: 백제를 브랜딩하라'를 주제로 한 세션을 통해 문화예술인 및 전문가들과 함께 백제역사유적지구의 가치와 매력을 조명할 계획이다.

7월 8일부터 14일까지는 '제8회 백제문화유산주간'이 익산과 공주, 부여에서 펼쳐진다. 매년 세계유산 등재일인 7월 8일을 기념해 열리는 행사는 유관기관들이 협력해 참여형·체험형 중심의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국가유산방문캠페인의 7월 '이달의 방문코스'로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선정돼, 캠페인 참여자는 쏘카 차량·숙박 할인, 유적 무료입장, 기념품 증정 등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재)백제세계유산센터 누리집(www.baekje-heritage.or.kr)에서 확인하거나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10주년을 맞아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유산의 의미를 새롭게 되새기고자 한다"며 "더 많은 국민이 백제역사유적지구의 가치를 체감하고 일상에서 세계유산과 가까워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외식업체에 지역 쌀 구매 장려금 지원

업체 모집 20kg당 5천원

군산시가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우리 지역 쌀 이용업체 지정관리사업'에 참가할 업체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군산 쌀 공급업체가 산동진 쌀을 구매하는 관내 외식업체 등에 20kg 포대당 5,000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산동진 쌀의 소비 촉진을 위해 이번 사업을 준비했다.

본 사업추진을 위해 시는 관내 정미소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및 현장 심사를 거쳐 지난 13일 최종 4개의 공급업체를 이미 선정했다.

이번 '우리 지역 쌀 이용업체 지정관리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식당 등 외식업체는 오는 27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군산시에 사업장 주소지를 등록하고 군산지역에서 생산된 산동진 쌀을 이용하는 업체이다.

선정된 외식업체는 업체당 연간 100만 원(20kg/200포)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김상기 먹거리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식당과 집단급식소에서 군산 쌀을 꾸준히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비 기반도 넓히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 산동진 쌀 소비가 확대되고, 농가와 소상공인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AI·로봇 기반 미생물 산업 체계 본격 시동

99억 원 규모 국가공모사업 농식품공공바이오파운드리구축

정읍시가 미생물 소재 산업의 전주기 생산체계를 완성하며, 첨단 기술 기반의 그린바이오 산업 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시는 미생물 소재 개발과 생산에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기술을 도입해 설계부터 제품화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자동화하고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이를 통해 미생물 산업의 상용화 가능성을 높이고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지난해 국가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그린바이오 소재 첨단분석시스템 구축사업'은 올해 2년 차에 접어들었다. 총사업비 99억원(국비 49억 5,000만원, 지방비 49억 5,000만원)이 투입되며, 농식품 분야에 특화된 공공 바이오파운드리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업은 미생물 소재 제품 생산 시 필요한 설계, 제작, 시험, 학습 등 전 과정



을 자동화·고속화·표준화하는 것을 목표한다.

이 과정에서 도입되는 첨단 장비는 맞춤형 미생물 개발 및 대량 생산을 가능케 해, 국내는 물론 국제 시장에서도 경쟁력 있는 미생물 제품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시는 올해 5월부터 관련 장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시스템 통합 제어 장비를 추가로 설치한 뒤 연내 시운전을 마치고 본격적

인 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그린바이오 첨단분석시스템과 GMP 생산동, 연발 완공 예정인 농축산물 미생물산업 공유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며 정읍은 미생물 산업의 전주기 밸류체인을 갖춘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며 "정읍시가 미생물 산업의 전국 중심지로서 관련 기업 유치와 산업화 속도를 더욱 높여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여름방학 대학생 행정연수 참여자 모집

18일~24일 신청 접수 시청·공공기관 배치

익산시가 여름방학을 맞아 대학생들에게 진로 탐색과 직무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익산시는 18일부터 오는 24일까지 '2025년 여름방학 대학생 행정연수' 참여자 152명을 모집한다.

대학생 행정연수는 지역 대학생들에게 시청과 공공기관의 업무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해 진로 탐색을 돕고, 학비 부담을 덜 수 있는 경제적 지원까지 함

께하는 청년 일자리 사업이다.

지난 겨울방학 행정연수에는 총 145명이 선발돼 4주간 근무를 마쳤으며, 만족도 조사 결과 참여자의 98%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신청 자격은 익산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이며,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익산 청년시청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선발된 학생들은 오는 7월 7일부터 8월 1일까지 4주간 익산시청, 행정복지

센터를 비롯한 49개 부서와 익산우체국 등 4개 공공기관에 배치돼 근무하게 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현울 익산시장은 "대학생 행정연수는 익산의 대표적인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실무 경험을 통해 진로를 구체화하고 역량을 쌓을 좋은 기회"라며 "방학 동안의 값진 경험이 청년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찾아가는 동네문화카페 강좌 모집

지역주민 맞춤형 학습 제공

군산시는 오는 25일부터 7월 2일까지 8일간 '찾아가는 동네문화카페 2기'에 참여할 강좌를 모집한다.

동네문화카페는 평생학습을 골목 상권과 연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 공동체 안에서 소통과 공유가 가능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군산시 대표 평생교육 사업이다.

특히 교육에서 소외되기 쉬운 지역주민들에게도 맞춤형 학습 기회를 제공하며 근거리 평생학습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그동안 동네문화카페는 기수별

400강좌씩 연중 3기로 운영되어왔으나 올해는 조기 대선으로 인해 일정이 변경되어 연중 2기로 운영된다. 대선 2기는 450강좌를 모집하여 15주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2기 강좌는 450강좌를 모집하여 8월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 15주간 운영될 계획이다.

강좌 신청은 군산시평생학습정보망(https://ill.gunsan.go.kr/)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 수강생 전원이 60세 이상인 경우 군산시청 7층 소회의실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의회, 시청 내 어린이집 동의안 심사서 부결

익산시의회(의장 김경진)는 제270회 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시청 내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했다고 밝혔다.

시는 영유아보육법 제30조의2에 따라 상시근로자가 500명 이상일 경우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으나, 그동안 인근 민간어린이집과의 협약을 통해 직원들의 보육수요를 지원해 왔다. 이에 따라 2026년 신청사 완공 시 지상 1층 352.22㎡ 규모로 어린이집 공간이 확보될 예정이어서 이 시기에 맞춰 급변 회기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한 것이다.

그러나 익산시가 별도의 시청 내 새로운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민간위탁을 추진하면서, 이로 인한 주차장 부족과 민간어린이집과의 협의 미비, 비용의 적정성 등을 포함해 심각하게 우려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강조된 주요 부결 사유는 다음과 같다.

△ 신청사의 심각한 주차장 부족 우려, △ 관내 민간어린이집과의 협의 미비로 인한 갈등 우려, △ 비용의 적정성과 심사 자료의 불투명성

이종현 위원장은 "우선 한국보육진흥원이나 유관 전문가로부터 비용과 운영의 타당성을 검증해야 하고, 이는 납세자의 세금을 투입함에도 더욱 엄격하게 심사해야 할 의회의 역할"이라며 "익산시청 직원들의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직장어린이집은 마땅히 설치되어야 하지만 민간위탁을 결정하기 전에 지역 민간어린이집과의 상생 협의와 중요 운영방침을 조율한 다음에 심사해도 늦지 않다"고 부결 사유를 피력했다.

시의회 상임위원회는 이같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협의, 검증,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기보다는 일방적으로 안건을 상정했다고 지적하면서 만장일치로 부결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현울 익산시장, 장마철 앞두고 적치물 제거 캠페인

선제적 재해예방 실천

익산시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범시민 재해예방 운동에 나섰다. 익산시는 장마철을 앞두고 18일 망성면 화산지구와 용동·용안면 일원에서 민관 협력 '농경지 적치물 제거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경기조인 '재난안전관리'는 공직사회 최우선 책무'에 발맞춰, 익산시가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선제적 현장행정을 실천한 것이다.

이날 정현울 익산시장을 비롯해 망

성·용안·용동면 자생단체, NH농협 익산시지부, 자원봉사센터 등 200여 명이 참여해 침수 발생 요인 차단에 힘을 모았다.

참여자들은 농경지 배수로 및 비닐하우스 주변에 방치된 폐비닐과 보온커튼 등 적치물을 수거해 침수 원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예방 중심의 안전도시 구현을 목표로 활동에 나섰다.

정현울 익산시장은 "호우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시민과 함께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익산미륵사지휴게소' 명칭 변경 기념 기부 이벤트

기부자100명 추천 커피 상품권

익산시는 여산휴게소 명칭이 '익산미륵사지휴게소'로 변경된 것을 기념해, 18일부터 7월 8일까지 3주간 고향사랑기부제 특별 이벤트를 추진한다.

이번 휴게소 명칭 변경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미륵사지를 품고 있는 백제왕도 익산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한(韓)문화 발상지이자 찬

란한 백제 문화 중심지인 익산의 브랜드를 전국에 알리는 상징적인 계기가 되고 있다.

이벤트는 '고향사랑이(에)음' 또는 '민간플랫폼'을 통해 익산시 고향사랑기부제에 10만 원 이상 기부하고 답례품까지 신청한 기부자를 대상으로 한다.

총 100명을 추천해 커피 모바일 상품권(1만 원권)을 증정할 예정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특히, 여름철 휴가 성수기인 7월 15일부터 8월 25일까지는 매일 야간개장을 실시해 무더위를 피해 순장을 찾는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탐방 가능 구간은 강천산 매표소에서 천우폭포까지 약 1.3km로, 경사가 완만하고 탐방로가 잘 정비되어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안전하고 편안하게 걸을 수 있다.

설치되어 있어 어두운 밤하늘 아래 빛나는 폭포의 이색적인 경관을 감상할 수 있으며, 사진 촬영 명소로도 주목받고 있다.

아울러, 군은 야간 시간대 탐방객의 안전을 위해 주요 산책로에 경관 조명과 안전 유도등을 설치하고, 현장 관리 인력도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강천산 오토캠핑장 이용객은 별도의 입장료 없이 야간개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

최영일 순창군수는 “강천산은 순창이 자랑하는 전국 최고의 힐링 명소로 이번 야간개장을 통해 밤의 자연 속에서 감동을 경험하실 수 있을 바란다”며 “안전한 관람환경까지 세심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천산군립공원은 일반 입장객 기준으로 성인 5,000원, 청소년 4,000원의 입장료가 있으며, 야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순창=박지현 기자

순창군은 대표 관광지인 강천산국립공원에서 11월 8일까지 야간개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진=순창군>

또한, 천우폭포 인근에는 LED 조명이 설치되어 있어 어두운 밤하늘 아래 빛나는 폭포의 이색적인 경관을 감상할 수 있으며, 사진 촬영 명소로도 주목받고 있다.

아울러, 군은 야간 시간대 탐방객의 안전을 위해 주요 산책로에 경관 조명과 안전 유도등을 설치하고, 현장 관리 인력도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강천산 오코캠핑장 입객은 별도의 입장료 없이 야간개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강천산은 순창이 자랑하는 전국 최고의 힐링 명소로, 이번 야간개장을 통해 밤의 자연 속에서 감동을 경험하실 수 있을 바란다”며 “안전한 관람환경까지 세심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천산군립공원역은 일반 입장객 기준으로 성인 5,000원, 청소년 4,000원의 입장료가 있으며, 야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순창=박지현 기자

이번 간담회는 외식업계 현지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남원시 시정 방향과 외식산업 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남원시 외식업 협회 회원 30여 명이 참석했다.

남원시 외식업협회는 사단법인 한국 외식업중앙회 전북지회 남원시지부로, 총 990명의 회원이 등록돼 있으며, 백

식업계 종사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

를 전했다.

한편 남원시는 외식업 환경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음식점 시설개선 사업, 모범음식점 및 위생등급제 지정 업소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음식점 시설개선사업의 경우 위

생환경 조성, 인식 테이퍼 설치 등 영업

터를 활용한 1회용 앞치마 제작 지원, ▲경외사가 청년몰 거거리 운영과 기존 상권의 공존 방안, ▲이주여성 등의 인력 수급 연계 방안 등 다양한 건의가 제시됐다. 남원시는 관련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실현 가능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17일 완주군과 전북현대모터스축구단이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완주군>

력을 공식화했다.	주요 내용은 전북 현대 모터스 FC가	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일환
협약식에는 유희태 완주군수, 유익식	전주 흥경기 관람 인원 배정 및 관람을	으로, 아동·청소년의 문화 격차를 줄이
완주군의회 의장, 이도현 전북현대모	지원하고, 완주군은 아동·청소년 대상	고 스포츠를 통한 소통과 참여 기회를
터스 단장을 비롯해 관계자 10명이 참	축구 관람 참여자 모집과 홍보를 진행	확대하고자 진행됐다.
석했다.	한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이번 협약은 아
이번 협약은 완주군과 전북 현대 모	협약에 따라 당일 전북 현대와 수원	동·청소년들이 문화적 감수성과 공동체
터스 FC가 협력해 아동·청소년들에게	삼성 축구 경기를 완주군 아동·청소년	의식을 키울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될
축구 경기 관람을 통한 문화적 경험을	160명이 참여해 관람했다.	것"이라고 말했다.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협약은 완주군이 추진하는 유니	/완주=김명곤기자

의하는 기구로서 때문기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날 열린 회의는 남원시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인 최경식 시장 주재로 김영태 남원시의회 의장, 김우석 남원경찰서장, 최영배 제7733부대 3대대장 등 남원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733부대 2025년 2분기 통합방위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보고, 유지연속 보고 및 2025년 남원시 통합방위 추진성과 및 추후 계획 등이 이뤄졌다.

남원시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인 최경식 시장은 “일상의 복합적 위협과 불확실한 안보 상황 속에서 지역 차원의 통합방위 역량 강화는 무엇보다 중요하며 안보를 더욱 굳건하게 지키기 위해 통합방위 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고안한 남원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통합방위 추진성과 및 추후 계획 등이 이뤄졌다.

남원시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인 최경식 시장은 "일상의 복합적 위협과 불확실한 안보 상황 속에서 지역 차원의 통합방위 역량 강화는 무엇보다 중요하며 안보를 더욱 굳건하게 지키기 위해 통합방위 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도 안전한 남원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옥천요양원은 17일 ㈜유니드비티플러스의 후원으로 진행된 노후 마루 수리 완료 기념 현판식을 열었다. <사진=순창군>

해 어르신들의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했다.

현판식에는 최영일 순창군수, 한상준 ㈜유니드비티플러스 대표이사, 김상민 디블어미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산립위원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한편, ㈜유니드비티플러스는 앞으로도 도내 복지시설 무료 마루교체, 성금 기탁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과 상생하는 나눔경영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순창=박지현 기자

지원대상은 접수마감일 기준 사용 본격지가 완주군에 6개월 이상 연속 으로 등록되고, 최종 소유주 6개월 이 상 소유 차량이어야 한다. 환경개선부 담금·지방세 체납이 없고, 정부 지원 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 거나 저공해 엔진 개조 사실이 없다 야 하며, 인종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DPF) 부	10%~12.5% 최대 64만 9,000원 지 담이 있으며 건설기계 엔진 교체 전동화 및 개조 지원사업은 본인 부담 없이 장치 가격을 전액 지원한다. 다만, 2년 간의 의무 운행 기간 내 탈거 또는 말소 시 보조금이 회수 수 있으며 주로 주의해야 한다. 신청서 접수는 23일부터 27일까 이다. /원주=김명근
---	---

작 지원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며, 건설기계 엔진교체는 Tier-1 O
의 엔진을 탑재한 2004년 이전 제
된 지게차, 굴착기 등 건설기계, 건
계 전동화 개조는 대국민 공모를
해 선정된 전동화 가능 건설기계
덤프에 대상이다.

지원금액은 매년저감장치(DEF) 부착 지원사업의 경우 장치 가격의 10%~12.5% 최대 64만 9,000원 정도이며 건설기계 엔진 교체, 전동화, 개조 지원사업은 본인 부담 없이 장치 가격을 전액 지원한다.

다만, 2년 간의 의무 운행 기간 내 탈거 또는 말소 시 보조금이 회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신청서 접수는 23일부터 27일까지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약 224억 원이 사용되었으며, 이는 전체 예산의 약 98%에 해당하는 높은 사용률이다. 특히 지난 3월 1일부터 사용 가능 여부를 확대하고 일부 제한 업종에 대한 기준을 완화한 이후, 활용도가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패션·잡화 분야 약 15%, 마트·슈퍼마켓·편의점 등 생활소비업종 약 11%, 주류 판매 업종 약 9% 순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생활 업종에서 고르게 사용된 것으로 분석됐다.

남원=정하복 기자

가 눈에 띄게 높아지며 소비 확산
가속도가 붙었다. 하나로마트 등
면 지역의 대형마트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어르신 등 고령층의 사
용도 크게 증가했다.

업종별 사용 현황을 보면, 요식업 분야 특히 한식 업종이 약 2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일반음식점과 기타 외식업종이 뒤를 이었다.

이어 패션·잡화 분야 약 15%, 마
슈퍼마켓·편의점 등 생활소비 업
11%, 주류 판매 업종 약 9% 순으
나타나 다양한 생활 업종에서 고
사용된 것으로 분석됐다.

/남원=정하복 거

16일 기준으로 배부액 293억 중 289억인 98%가 사용됐다. 현재 4억 원(2%)정도가 사용되지 않은 상태로 잔액은 ARS농협(1644-4000), 전북은 상한고 매입확약액의 450여억을 절감하면서 이를 민생안정지원 300억 원에 사용했다.

잔액은 ARS농협(1644-4000), 전북은 /원주=김명근·

행(1588-4477)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남은 잔액은 전통시장, 식당, 마
병의원 등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
능하다.

한편, 완주군은 적극적인 기업유
로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
완관이 임박하면서 SPC 부채를 도
상환하고 매입확약액의 450여억
을 절감하면서 이를 민생안정지출
300억 원에 사용했다.

/완주=김명곤지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생생형 AI 활용 역량을 강화해 지역의 디지털 사회 전환을 지원하고자 SW/ICT 특강 'AI로 디지털 작가되다' 신청자를 전북특별자치도 및 지역 산관 시민을 대상으로 해, 오는 7월 4일까지 온라인 접수로 모집한다.

앞서 지난 4월에는 생성형 인공지능(ChatGPT) 프롬프트 활용법을 중심으로 한 실질 특강이 진행된 바 있다. 이번 특강에서는 Book Creator를 활용에 전자책을 제작하는 것을 목표로 휘트니스 AI로 만드는 나만의 스토리 구성부터 Canva AI를 활용한 SNS 콘텐츠 이미지 생성을 하고 Gemini, Chat GPT 등 다양한 인공지능(AI)툴을 함께 활용하며 생성형 AI에 대한 이해는 물론 창의적인 콘텐츠 제작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AI로 디지털 작가되다’ 특강은 7월 12일 (토)부터 13일(일)까지 이틀간 SW미래채움 전복센터 2층 다목적실에서 진행된다. 이론 강의와 실습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참가비는 전액 무료이다.

한편 24년 12월에 개소한 SW미래채움 전
북센터는 남원시 금동 어울림 도서관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다.

남원시장 최경식은 “AI 기술이 낫설지 않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대한노인회순창군지회가 주관하는 제27회 순창군지회장기 게이트볼대회가 18일 순창군 공설운동장 게이트볼구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대회에는 참가선수와 최영일 순창군수, 손종석 순창군의회위원장 등 내빈포함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르신들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여가활동을 통한 건강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최영일 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오늘로 제 27회를 맞이하는 순창군지회장기 게이트볼대회는 많은 어르신들이 즐길 수 있는 전통 있는 생활스포츠 대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면서 “순창군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유지를 위해 어르신들의 생활스포츠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순창군은 대한노인회순창군지회를 통해 게이트볼 대회 외에도 파크골프, 그라운드 골프 등의 생활체육 대회 개최를 지원해 어르신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봉동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국인숙, 윤당호)가 어르신 문화체험 일환으로 18일 봉동읍 행정복지 센터에서 20명의 저소득 어르신과 함께 꽃바구니 만들기 시간을 가졌다.

어르신 문화체험은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
회적 고립으로 인해 문화생활을 하기 어려
운 어르신들의 소외감과 고독감을 해소하
고 행복한 하루를 선물한다는 취지로 지난
2022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그동안 영화 관
람, 케이크, 점식 만들기 등 다양한 문화체
험 기회가 제공됐다.

이날 어르신들은 꽃바구니에 각자의 개성을 담아 꽃꽂이를 하며 힐링하는 시간을 가졌다.

코아루꽃마트 대표

인사들의 활동을 지
이사장이면서 청
성 대표가 백합 20
구미리 오상권 화
베라 꽃을 지원했
상협의체 위원들은
다

“앞으로도 우리 자
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특화사업 추
말했다.



남원 쌍교동성당, 노인복지관에
바자회 수익금 1천만 원 기부

남원시는 천주교 전주교구 남원 쌍교동성당(주임신부 이상용)이 제95회 춘향제 기간 동안 개최한 음식 나눔 바자회 수익금 중 1천만 원을 남원시노인복지관에 기부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쌍교동성당은 지역 어르신 복지 향상을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춘향제 기간 중 바자회 수익금을 꾸준히 기부해 왔으며, 올해까지 12년간 누적 기부 금액은 약 1억 1천만 원에 달한다.

/남원=정하복 기자



카페 '인디비주얼',
장수군에 성금 300만 원 기탁

장수군은 임실군 운암면 소재 카페 '인디비주얼'(대표 박춘열)에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성금 300만 원을 기탁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이번 기탁은 지난 11일 장수군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해 500만 원 상당의 아동의류 500벌을 기탁한 데 이은 나눔 실천으로 평소 지역과 상생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해 온 대표의 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지역사회에 따뜻한 귀감이 되고 있다.

박춘열 대표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전주시 이편한숲어린이집,
온기나눔바자회 수익금 전액 기부

전주시 우아동 이편한숲어린이집(원장 윤은영)은 18일 전주시복지재단(이사장 윤방섭)에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온기나눔바자회를 통해 모아진 수익금으로, 이를 통해 이편한숲어린이집은 전주시복지재단의 제37호 '백만천사'가 됐다. 윤은영 원장은 "앞으로도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재근 기자

새만금 그린트러스트, 플로깅 챌린지 펼쳐

새만금 일대 쓰레기 줍기

새만금개발청은 세계 환경의 달을 맞아 18일 새만금 해양관광지 일대에서 민관 합동 '플로깅 챌린지'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챌린지에는 새만금개발청, 부안군, 새만금개발공사,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새만금 국가산단 입주기업 등 임직원 50여 명이 참여해 부안 돌레길 3.5km 구간에 대한 주변 환경을 정화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3월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 가능한 새만금 개발을 위해 민·관·학 협력 거버

넌스를 구축하고 '새만금 그린트러스트' 공식 출범식과 함께 기념으로 식목 행사를 한 바 있다.

앞으로 그린트러스트를 중심으로 해양 쓰레기 업사이클링, 새만금 특화 경관 조성 등 다양한 친환경 정책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새만금개발청 김민수 사업총괄과장은 "작은 실천이 모이면 기후 위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질 것"이라면서, "새만금이 친환경 생태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관계 기관 기업들과 함께 계속해서 활동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새만금개발청은 세계 환경의 달을 맞아 18일 새만금 해양관광지 일대에서 민관 합동 플로깅 챌린지 행사를 진행했다

<사진=새만금개발청>

전북대 후원의집, 20여년째 전하는 사랑의 장학금 수여

지역 업체의 따뜻한 나눔

매달 따뜻한 기부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 '전북대 후원의집' 대표들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건네며 온기를 전하는 뜻깊은 자리가 지난 17일 전북대학교 진수당에 마련됐다.

전북대 후원의 집 대표들이 직접 참여해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행사가 열린 것이다.

장학생으로는 경상대학 경제학부 김성용 학생을 포함한 총 20명이 선발됐다.

2003년부터 운영된 '후원의집' 제

도는 지금까지 약 14억 원의 기금이 조성됐다. 현재까지 이자 수익으로만 300여 명의 학생에게 2억 6천만 원가량의 장학금을 전달해 왔다.

양오봉 총장은 축하사에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기부는 학생들에게 큰 용기와 자긍심을 심어주고 있다"며 "후원의집 장학금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의 가치이자 우리 대학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라고 강조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대병원, 구강건강 증진 홍보 캠페인

전북대학교병원이 제80회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호흡기센터 복도에서 구강 건강 인식 증진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

전북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센터장 백진아)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80년 함께한 구강건강, 100세 시대의 동반자' 슬로건과 함께 병원을 찾은 내원객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구강 건강 리플렛을 배부하는 등 구강 건강의 중요성을

알리는 다채로운 내용으로 진행됐다.

백진아 센터장(구강악안면외과 교수)은 "장애인분들이 구강 건강을 꾸준히 관리하는 것은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 있어 중요하다"며 "이번 기념 행사를 통해 장애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구강 건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박경숙 씨, 임대아파트 거주하며 모은 기부금 전달

군산시 나운2동 행정복지센터는 관내에 사는 박경숙씨(69세)가 이웃돕기 성금으로 100만 원을 기부했다고 18일 밝혔다.

전달식에 참여한 박경숙씨는 "영구임대아파트에 살면서 나 자신도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말하면서 "하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이 이 성금으로 희망을 찾고 작은 도움을 얻는다면 참 보람차고 행복한 것"

이라면서 기부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이백만 주민자치위원장은 "사랑과 나눔이 사라지는 시대에 자신보다는 이웃을 생각하는 박경숙 선생님의 마음에 존경을 표한다"며 "아무췌록 따뜻한 마음과 사랑이 지역 사회에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 사랑의 열매 나눔봉사단,
시원한 여름이불 280채 전달

익산시에 취약계층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지원하는 시원한 나눔이 전달됐다.

익산시는 '익산 사랑의 열매 나눔봉사단(단장 이해석)'이 여름이불 280채(1,500만 원 상당)를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해석 단장은 "이웃들이 더운 여름을 조금이나마 시원하고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이불을 준비했다"며 "이불 한 채에 담긴 마음이 이웃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완주군지사협, 삼우중학교서
등굣길 아침밥 먹기 캠페인

완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아동청소년분과(분과장 임소근)이 구이중학교에 이어 지난 17일 이서면 삼우중학교에서 '청소년 등굣길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백정열 완주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 유재현 실무위원장, 아동청소년친화분과 위원, 학교 관계자, 재학생 등 3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캠페인은 올해 아침밥 먹기 운동의 첫 걸음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아침밥의 중요성과 쌀의 영양학적 효능을 홍보해 건강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완주=김명근기자

전북소리숲오케스트라,
자립준비청년 지원 후원금 전달

전북소리숲오케스트라(단장 김정훈)가 18일 전북자치도 내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후원금을 굿네이버스 전북특별자치도자립지원전담기관(관장 김정환)에 전달했다.

이번 후원금은 전북소리숲오케스트라의 도내 자립준비청년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버스킹 공연과 일일식탁 '숲식당' 운영으로 마련됐다.

전북지역 내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장학금 및 생계지원비로 사용될 계획이다.

/정재근 기자

식중독 예방 6대 수칙

손을 깨끗하게 씻어요	음식은 꼭 익혀드세요	물도 급격적이면 끓여먹어요	세척 및 소독하기	구분해서 사용하기	보관온도 지키기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씻어주세요.	2 육류 중심온도 75도, 어패류는 85도로 1도 이상 익혀 드세요.	3 물은 100도 이상으로 끓여서 먹도록 해요.	4 식재료와 조리도구는 깨끗이 세척하고 햇빛에 꼭 소독해주세요.	5 날 음식과 조리 음식을 구분해서 칼과 도마를 구분해서 사용하세요.	6 냉장식품은 5도 이하, 냉동식품은 -18도 이하에서 보관합니다.

〈一事一言〉



권력 앞에 무너진 대학, 지성의 붕괴를 고발한다

김관춘

논설위원

윤석열 정권하에서 진리와 정의의 상징이어야 할 대학이 권력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국민들은 분노와 참담함 속에 지켜 봐야 했다.

국민대와 숙명여대가 김건희 씨의 석·박사 학위 논문에 대한 명백한 표절 정황을 확인하고도, 오랜 시간 침묵과 회피로 일관했던 그 반지성적 행태는 단순한 행정적 태만으로 볼 수 없다. 그것은 지성의 배반이자, 학문 윤리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권력의 그림자에 휘둘린 두 대학의 모습은 작금의 이 나라 고등교육이 얼마나 허약한 토대 위에 놓여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명징한 사례로 오래 남을 것이다.

국민대는 2022년, 교육부로부터 김건희 씨의 박사논문이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았다. 숙명여대 또한 석사논문에 표절 정황이 뚜렷하다는 학계의 반복된 지적을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대학은 '시효 경과'와 '고의성 부족'이라는 공색한 핑계를 내세워 학위 유지 결정을 고수했다. 이는 명백히 형식 논리에 기대 본질을 외면한, 책임 회피의 결정이었다. 당시 대학들은 학문적 양심보다 자본논리와 정치적 계산을 앞세웠고, 그 결과 학문의 자율성은 권력 앞에서 산산이 부서졌다.

대학이란 본디 권력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진실을 탐구하며, 사

회적 비판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진리와 지성의 전당이다. 그러나 국민대와 숙명여대는 스스로 그 정체성을 부정했다. 대통령 배우자의 논문 문제 앞에서 이들은 학문이 아니라 권력에 고개를 숙였고, 결국 '학위'를 지켜낸 것이 아니라 '학문'을 버리는 선택을 했다. 연구 윤리의 기준이 흔들리는 순간, 대학은 그 존재 이유를 상실한다. 지성은 침묵했고, 윤리는 무너졌으며, 청년들에게 남겨준 것은 '권력에 기대면 표절도 용서 받는다'는 비굴하고 왜곡된 메시지뿐이었다.

무엇보다 큰 피해는 묵묵히 연구와 학문에 몰두해 온 다수의 성실한 학생들과 연구자들에게 돌아갔다. 그들은 논문 하나를 쓸 때마다 인용 출처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하며, 연구의 정직성과 투명성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 밤을 지새 지성인들이다. 하지만 이 사건은 그들의 노력을 배반했고, 공정과 정의에 대한 믿음을 크게 훼손시켰다. 한 사회가 윤리적 가치 위에 서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시험대에서, 대학은 철저히 낙제점을 받은 것이다.

최근 정권이 교체되면서 숙명여대는 김건희의 석사학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학칙 개정을 완료했고, 국민대 또한 박사학위 취소 절차를 착수했다. 그러나 이는 정당한 평가가 아니라, 이제서야 뒤늦게 권력의 눈치를 그만 보기 시

작했다는 정치적 해석이 가능하다. 김건희가 위세를 부릴 땐 비굴하던 대학이 그가 몰락하자 태세 전환을 시도한 것은 그저 더러운 술수에 다름 아니다. 이미 무너진 신뢰와 윤리는 회복하기 어렵다. 대학이 자율성과 양심을 포기한 채, 정권의 풍향에 따라 움직이는 조직처럼 행동한 지난날은 쉽게 지워질 수 없는 역사적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교육부 역시 이 사안에 있어 철저히 무기력했다. 명확한 표절과 연구 부정 의혹이 제기된 논문들에 대해, 권력의 눈치를 본 대학들이 엉뚱한 논리를 들이밀 때, 교육 당국은 단호한 입장 표명과 제도 개선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탄정을 부렸고, 다수의 대학사회 역시 침묵으로 동조했다. 그 결과, 공공성을 지켜야 할 대학은 권력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했고, 시민들의 실망과 분노는 극에 달했다.

민주주의는 언론, 시민사회, 학문이라는 세 기둥 위에 선다. 그 중 대학은 진실을 탐구하고 권력의 횡포를 견제, 비판하는 지성의 최후 보루다. 그러나 그 보루가 무너졌을 때, 우리는 어디에서 희망을 찾아야 하는가? 대학이 정의를 말하지 않는다면, 누가 진실을 지켜낼 것인가? 오늘날 청년들이 점점 더 냉소적이고 기회주의적으로 변모하고 있는 현실 역

시 이와 무관하지 않다. 어른들이 지켜내지 못한 공정의 가치를 이제 누구에게 기대할 수 있는가?

국민대와 숙명여대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김건희의 학위를 지키기 위해 그들이 무엇을 잃었는지를. 그리고 그들이 보호했던 것은 한 개인의 경력이 아니라, 대한민국 고등교육 전체의 신뢰를 갉아먹는 결정이었다는 사실을. 시대는 대학이 권력 앞에 무릎 꿇던 날, 교육의 윤리적 사망 선고가 내려졌음을 분명히 기억할 것이다. 이 결정은 단순한 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윤리와 상식, 그리고 공공성의 최후 보루가 무너진 참담한 사건이었다.

지성은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 대학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누구의 편에 서 있는가? 진실을 외면한 학문은 학문이 아니며, 윤리적 책임 없는 교육은 교육이라 말할 수 없다.

국민대와 숙명여대는 지금이라도 자신들의 부끄러운 선택을 반성하고, 학문적 정직성과 자율성을 회복하기 위한 전면적 쇄신에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더럽혀진 그 이름은 오랫동안 '지성의 배반'이라는 수식어와 함께 국민의 기억 속에 박제되고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더러운 세상의 중심에는 언제나 타락한 지성이 있다.

사설

새만금, '속도'와 '실행력'으로 조기 완성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지난 5월 군산을 방문해 새만금 개발의 조기 완성과 규제 혁신을 강조한 것은, 그간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사업의 전환점을 예고하는 중요한 발언이었다. 대통령 스스로가 새만금 정상화와 SOC 조기 완성의 필요성을 직접 언급한 만큼, 이제는 말이 아닌 실천적 행동이 필요할 때다. 새만금은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계획과 비전이 오갔지만, 실질적 변화는 더디기만 했다. 더 이상 선언적 비전이나 형식적 추진계획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속도'와 '실행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전북자치도가 이에 발맞춰 '속도'와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새만금 개발전략을 재정비한 것은 매우 적절한 대응이다. 특히 정부 직속의 '새만금 전담 TF' 구성과 '글로벌 메가센트박스' 도입은, 중첩된 규제와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해 번번이 좌초됐던 과거의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 수단이 될 수 있다. 전담 TF는 새만금 정책 추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며, 부처 간 엇박자를 조율하고 속도감 있는 의사결정을 가능케 할 것이다. 또한 글로벌 메가센트박스는 예타면제, 규제특례, 산업 실증단지 조성 등을 아우르는 통합 제도로, 새만금을 단순한 개발지가 아닌 세계적 첨단산업 실험도시로 변모시키는 핵심 열쇠다.

더욱이 의료용 헴프산업 클러스터, 줄기세포 치료 실증단지, 이차전지 R&D 콤플렉스 등 첨단산업 중심의 실증사업은, 새만금이 미래 신산업의 테스트베드로서 기능할 수 있는 현실적 가능성을 보여준다. 외국인 고용 규제완화, 공적

기금의 대체투자 활성화 등 투자센트박스 계획도 민간 투자 유치에 새로운 활로를 열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단순한 지역 개발이 아니라, '투자-임지-생산-확장'으로 이어지는 기업 유치의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는 국가적 전략이 되어야 한다.

이제 중요한 것은 실행이다.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가 현장에서 체감되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지 않으면, 새만금은 또다시 '미래를 약속하는 땅'이라는 공허한 슬로건에 그칠 공산이 크다. 국정기획위원회와 정치권, 전북자치도는 한 목소리로 새만금 조기 완성을 위한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하며, TF 구성과 제도 혁신은 가시적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

특히 정부는 새만금을 단기 성과 중심의 사업이 아닌, 장기적 성장 동력으로 인식해야 한다. 단순한 토목사업을 넘어서, 첨단 기술과 산업 생태계가 융합되는 복합 혁신지구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선 매년 국비 확보와 투자 인프라 확대, 정기적인 추진 점검체계 마련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가 없이는 그 어떤 비전도 공허할 뿐이다.

새만금은 단지 전북만의 과제가 아니다. 국가균형발전, 미래 산업 육성, 글로벌 경쟁력 제고라는 대한민국 전체의 중요한 전략 과제다. 새 정부 3대 비전 중 '성장'이라는 목표에 가장 부합하는 사업이 바로 새만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제 새만금은 실행 가능한 구체적 정책으로 속도감 있게 완성되어야 할 때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은 없다.

문화재열전



개암사 석가여래삼존불좌상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분류-유물, 불교조각, 불상

-지정일-2023년 7월 21일

-시대-조선 후기

-소재지-부안군 상서면

개암로 248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전북시대 1978.4.4 창간 www.jeonbuktimes.co.kr		2011년 10월01일 創刊 /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발행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정재근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시 010-98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8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앙지시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연수지시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9-1721	완주지국 010-3872-0308
팔백지시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천지시-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9-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령을 준수합니다			



6월 날씨정보

날짜	6월19일 목요일		6월20일 금요일		6월21일 토요일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날씨						
기온	21℃	33℃	24℃	30℃	23℃	26℃
강수확률	10%	60%	60%	60%	70%	60%

역사·스포츠·힐링·미래가 공존하는 도시, 정읍의 화려한 비상

정읍시가 시민의 행복과 지역의 활력을 목표로, 문화관광, 스포츠, 힐링, 미래 교육을 아우르는 다각적인 사업을 펼치며 역동적인 도시로의 대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먼저, 정읍의 유구한 문화유산을 첨단 실감콘텐츠로 재해석하는 '문화유산 방문자센터'를 건립해 새로운 관광의 거점을 마련한다. 이와 더불어, 전국 단위의 대규모 스포츠대회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며 연간 2만 명이 상의 방문객을 유치하고 70억원이 넘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창출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2026년 완공 예정인 '아양산 치유의 숲'을 조성하고 도심 속 '음악분수' 운영을 재개하는 등 일상에 지친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과 치유의 공간을 제공한다. 나아가, '북스타트 사업'을 통해 영유아기부터 아이들이 책과 함께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하며 도시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인재 양상에도 힘쓰고 있다.

첨단 기술로 되살아난 문화유산, 정읍 관광의 새로운 심장을 열다

정읍 관광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정읍 문화유산 방문자센터' 건립 사업이 올해 12월 사용승인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은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차원을 넘어, 첨단 기술을 통해 정읍의 풍부한 문화유산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혁신적인 시도다. 연면적 4314㎡, 2층 규모로 조성되는 방문자센터는 정읍의 역사적 자산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실감형 미디어아트 공간으로 꾸며진다.

센터 내부에는 상설 전시실과 체험시설이 들어선다. 이곳에서 관람객들은 정읍의 역사, 동학농민혁명,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무성서원의 가치를 오감으로 체험하게 된다. 또한, 아이들의 창의력을 자극하는 '라이브 스케치 체험'이나 바닥의 움직임에 반응하는 '인터랙티브 체험' 등은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문화유산을 현대적 표현 기술과 아름다운 색감으로 재해석한 이 공간이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문화 거점이 돼 관광객 증가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스포츠로 활력 넘치는 도시,
70억 경제 효과로 지역을 깨우다
시는 '스포츠 도시'라는 새로운 이름표

를 달고 역동적인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다. 전국 단위 스포츠대회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고 개최하는 스포츠마케팅은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난 2월 전국 중·고등학교 스포츠리그 검도대회를 시작으로 정읍의 스포츠 시즌은 화려하게 막을 올렸다. 3월에는

나라, 지역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경제 구조를 구축하는 중요한 발판이다.

이러한 성과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시는 2019년부터 초등학교 태권도대회,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등과 다년간 개최 협약을 체결하며 안정적으로 전국 규모 대회를 유치하는 등 장기

새로운 랜드마크 '문화유산 방문자센터' 건립 대규모 스포츠대회 유치 70억 이상 경제 효과 2026년 완공 '아양산 치유의 숲' 삶의 질 향상

약 5000명의 마라토너가 정읍의 봄을 만끽하며 달린 '정읍동학마라톤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됐고 전국 프로볼링대회와 전국연맹종별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 등이 연이어 열리며 도시 전체에 활기를 더했다.

최근에는 전국 유소년 축구 페스티벌, 자전거대회 등이 성황리에 개최됐고, 앞으로 12개 종목에서 15개 이상의 전국 단위 스포츠대회를 연중 활발히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올해에만 약 2만명 이상의 선수단·관계자들이 정읍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이 정읍에 머무르며 식사와 숙박 등을 해결하면서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 효과는 70억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가 아

직인 안목의 스포츠마케팅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도심 속 원표, 아양산 치유의 숲과 음악분수로 시민 곁으로

바쁜 일상에 지친 시민들을 위한 '쉼'과 '힐링' 공간 조성 역시 역점을 두는 분야다. 도심 가까이에서 자연을 느끼고, 아름다운 선율과 함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공간들이 시민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있다.

시기동에 조성되는 '아양산 치유의 숲'은 도심 속 허파와 같은 역할을 할 힐링 명소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총 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약 7.24ha 규모로 조성되는 이 사업은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치유의 숲은 단순히 나무



가 우거진 공원이 아니고 산림자원을 활용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을 돕는 체계적인 치유 공간으로 설계된다.

숲의 중심에는 방문객 안내와 다양한 체험을 제공할 '치유센터'가 들어서며, 피톤치드 가득한 숲속을 거닐며 심신의 안정을 찾는 '치유숲길', 자연의 바람을 맞으며 사색에 잠길 수 있는 '풍요정' 등 다채로운 테마 공간이 조성된다.

이를 통해 아양산은 기존의 유아숲 체험원, 달빛 사랑숲 등과 연계해 전 세대가 함께 즐기고 휴양과 복지를 누리는 정읍의 대표적인 녹색 쉼터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도심의 밤은 더욱 화려하고 낭만적으로 변모한다. 4월부터 운영을 재개한 내장산 워터파크 음악분수와 정읍천 미로분수는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최고의 휴식 공간이다.

내장저수지 인근 워터파크 음악분수는 463개의 분수 노즐과 276개의 LED 조명이 어우러져 환상적인 야경을 선사한다. 특히 전국 최초로 선보이는 정읍

천 미로분수는 음악분수, 물놀이, 거울 연못의 세 가지 기능을 갖춘 특별한 공간으로, 민선 8기 '정읍천 관광 핫플레이스 조성'의 성공적인 결과물이다.

책과 함께 성장하는 아이들, 미래를 여는 '북스타트' 사업

시는 도시의 지속가능한 미래가 아이들의 손에 달려있다는 믿음으로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는 취지로 13년째 이어오고 있는 '북스타트 사업'은 정읍시의 미래지향적 가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 사업은 신생아부터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까지, 성장 단계에 맞춰 책꾸러미를 선물하고 다채로운 독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독서 진흥 운동이다. 책꾸러미는 그림책 2권과 가이드북, 예코백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출생신고 시 바로 전달받거나 도서관 방문·택배를 통해 손쉽게 수령할 수 있다.

책을 나눠주는 데 그치지 않고, 아이들이 책과 친해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

램을 함께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림책과 함께하는 오감발달 책놀이, 부모를 위한 그림책 육아 교육, 온 가족이 함께하는 북스타트 가족의 날 등은 책을 매개로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에 독서 문화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초등학교를 직접 찾아가 책꾸러미를 전달하고 작가와의 만남 등을 추진하는 '책날개 행사'는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과 함께 독서의 즐거움을 선물한다.

이학수 시장은 "북스타트 사업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책과 함께 성장하고, 책을 평생의 친구로 삼아 더 큰 꿈을 키워 나가길 바란다"며 미래 세대에 대한 깊은 애정과 기대를 나타냈다.

이처럼 정읍시는 역사와 문화유산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스포츠를 통해 도시의 역동성을 끌어올리며 자연 속에서 시민의 삶을 치유하고, 미래 세대의 꿈을 키우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머물고 살고, 찾고 싶은 도시'로의 변모를 거듭하고 있다.

/정읍=김정민 기자

제13회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 자연사랑·자연보호 그림그리기 대회

<행사 개요>

◆공모기간 - 2025년 5월27일 (화)~6월20일 (금)

◆참가대상 - 전북특별자치도에 재학중인 초등학생

◆작품주제 - 자연사랑 및 자연보호에 관련된 모든내용

◆공모부분 - 그림 (만화 포함)

◆용지규격 - 8절지 크기 (B4용지)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 (학교별 단체 및 개인접수)

◆접수처 - ☎54990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77, (진북동), 5층 (jbn8800@hanmail.net)

◆입상자 발표 - 2025년 7월 11일(금)

◆입상자 시상 - 2025년 9월 13일(토)

<시상내역>

♡ 대상(3명) -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상
전북특별자치도의의장상

♡ 최우수상 (4명) - 전주시정상(2명), 전주시의회회장상(2명)

♡ 우수상 (20명) - (재) 아시아문화교류재단 전북지회장상

♡ 장려상(50명) - 전북타임스신문 대표이사상

♡ 특별상 (3명) - 국회의원상

*기타문의사항-본사 총무국 063)282-9601 ~3

홈페이지 - www.jeonbuktimes.co.kr

